다발성 간암환자에 대한 간절제와 술 중 RFA (Radio-Frequency Ablation) 병합치료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

송재원·이재길·최진섭·김경식·이우정·김병로

배경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다발성 간암의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알려진 바로는 종양축소수술과 술 중 국소치료가 효과가 가장 좋다고 발표되어 있어, 본원에서 시행한 간절제와 술 중 RFA 병합 치료의 효과, 유용성, 부작용, 재발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.

방법 1999년부터 2004년 6월까지 다발성 간암으로 병합간절제와 술 중 RFA를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방법, 종양의 수, 위치 및 크기, 술 후 합병증, 재발에 대한 후향적 관찰을 하였다.

결과 환자는 8명이었으며, 평균 연령은 51세(44～69)였다. 수술방법은 우엽절제술 2명, 좌외구역절제술 2명, 2아구역절제술 2명, 아구역절제술 1명, 쐐기 절제술 1명이었다. 종양의 수는 총 21개(2～5개)였고, 절제된 종양의 수는 8개로 평균 크기는 7 cm (2.5～10.0 cm)이고, RFA로 치료된 종양의 수는 13개(1～4개), 평균 크기는 2cm (0.8～4 cm)였다. 술 후 합병증은 2명에서 7건 발생하였고, 절제와 관련된 합병증은 2명 모두 담즙종과 복수, 1명에서 늑막삼출, 기흉, 창상감염이 있었으며, RFA와 관련된 담관-피부 누공 1예가 있었다. 4명에서 재발이 있었으며 RFA 부위 재발 1명, 잔존간 재발 3명이었다. 재발에 대한 치료는 경동맥화학(색전)요법(TACE/TACI) (4명), 경피적홀뮴주입술(1명), 수술적 절제(1명)을 시행하였다. 관찰 기간 중 사망한 환자는 없으며, 평균 생존 기간은 15개월(3～60개월), 무병기간은 11개월(2～19개월)이었다.

결론 현재까지는 다발성 간암에 대해서 수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, 간절제와 술 중 RFA 병합 치료를 통해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 그러나 환자수가 적으며 추적 관찰 기간이 짧고, 확실한 적응증이 없는 상태여서 향후 가능한 환자에서 치료방법으로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.